

조선시대 永川지역 刊行書의 書誌的 分析

An Bibliographical Analysis of Books Published in Yongcheon, Joseon Period

윤 은 숙 (Yoon, Eun-SooK)*

권 오 덕 (Kwon, Oh De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현존 자료로 본 영천지역 간행서적 |
| 2. 영천 지역의 문화적 배경 | 5. 맺음말 |
| 3.史料기록에 수록된 영천지역 출판 활동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에 대하여 먼저 사료에 기록된 영천지역의 출판 활동을 살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및 현재 여러 기관에 전하고 있는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책판목록’·‘영천 인문지리서’·‘선행연구’·‘현존하는 영천 목판 현황 보고서’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영천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모두 108종이며 현존하는 간행서는 75종이다.

둘째,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고서 가운데 영천지역 간행서로 17세기에 간행된 『三韻通考』와 『癸丑增廣司馬榜目』, 그리고 18세기에 간행된 『迎日鄭氏世譜源派錄』 등은 실물이 처음 알려진 것이다.

셋째, 책판목록 등의 문헌기록과 선행연구 그리고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 자료 가운데 새롭게 발견된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를 종합하면 모두 131종이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에 100종의 간행본이 여러 기관에 전존하고 있다.

要語: 朝鮮時代, 永川地域 刊行書, 永川, 永川歷史文化博物館, 『三韻通考』

<ABSTRACT>

This paper conducted bibliographic research about books had been published in Yongcheon, Joseon period which are the collections of Yongcheonyeoksamunwha museum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bout publication of Yongcheon, and produced 3 following results.

First, 108 kinds of books were published in Yongche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lated studies, ‘List of Books in Joseon period’, ‘Human Geographical Books of Yongcheon’, and ‘Report of condition of the existing carved woodblocks in Yongcheon’ and 75 of them still remain.

Second, Yongcheonyeoksamunwha museum have 3 kinds of unprecedented books, *Samwoontonggo* and *Gyechukjeungguwangsamabangmok* printed in 17th century and *Yonginjonssisebowonparok* printed in 18th century.

Third, through the study of traditional records and precedent studies, 131 kinds of books including Yongcheonyeoksamunwha museum’s collection were published in Yongcheon in Joseon period and 100 of them are kept in public institutions separately.

Key words: Joseon Period, Books Publishd in Yongcheon, Yongcheon, Yongcheonyeoksamunwha museum, *Samwoontonggo*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yes22722@naver.com)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kwon-1027@hanmail.net) (공동저자)

접수일: 2017년 8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1. 머리말

영천지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인물들의 사상사나 문학적 성향 그리고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고문헌을 바탕으로 한 서지학에 있어서는 佛書類, 家禮類, 조선시대 작성된 책판목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영천지역 간행서에 대한 개별적 연구 및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에 대한 개괄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영천지역의 목판자료에 대하여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경북지역 목판 자료’를 조사하면서 영천지역의 목판자료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영천지역의 서적 간행 및 출판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크게 책판목록·사찰간행본·간행 및 인쇄문화 연구 등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판목록에 대한 연구에서 金致雨는 조선 전기 冊版目錄인 『攷事撮要』 冊版目錄, 『嶺南冊版記』, 『東京雜記』 書籍條 등에 수록된 刊本 傳存本을 조사·분석하여 영천 지역의 책판은 10種이라 밝혔다.¹⁾ 裴賢淑²⁾은 『고사촬요』에 누락된 책판을 조선중기 柳希春(1513-1577)의 『眉巖日記』 내용을 통하여 지방에서 판각한 책판에 대해 지방별로 분석하며 영천지역 간행서적을 추가하였다.

영천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에 대한 연구로는 남권희, 윤동원의 연구가 주목된다. 남권희³⁾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불서간행이 이루어졌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간행된 불서의 절반 이상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서책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나누어 지역별·간행처별·서적별로 분석하고 간행횟수에 의한 사찰 분석·불서 종류별 간행횟수·사찰별 소장목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여비고(東輿備攷)』의 사찰(寺刹) 기록 연구”⁴⁾에서 지역 사찰 간행서적과 종수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영천지역의 관련 사찰과 불서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윤동원⁵⁾은 경북지방 사찰의 소장 판본 및 전적을 지역별, 주제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천지역 불서 소장처는 銀海寺와 環城寺로 총 18종 686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은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 “경북지역의 현존판본 고찰”⁶⁾에서는 소장지역별, 간행처별, 주제별, 시기별로 분석하였는데, 이 가운데 영천지역은 은해사·영일정씨·창녕조씨·임고서원 등에 소장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영천지역 인쇄문화 및 간행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임기영의 연구⁷⁾가 주목된다. 임기영은 지역

1)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1999), 17-27.

2) 裴賢淑, “宣祖初 地方 冊版考,” 『書誌學研究』 제25輯(2003), 299-339.

3)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대전: 恒心 尹炳泰 博士 停年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9), 351-456.

4) 南權熙, “『동여비고(東輿備攷)』의 사찰(寺刹)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97-142.

5) 윤동원, “경북지방 사찰 소장 판본 및 전적 고찰,” 『디지털도서관』 제74호(2014), 84-104.

6) 윤동원, “慶北地方 現存 板本 考察,” 『디지털도서관』 제69호(2013), 86-106.

7) 임기영, “永川 地域 간행 서적에 대한 서지적 고찰,” 『書誌學報』 제38號(2011), 187-238.

출판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영천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전존본과 목판 그리고 책판목록 및 重記와 읍지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영천에서 간행된 서적과 그 인쇄문화를 연구하여 영천에서 간행된 종수를 모두 86종으로 파악하고 전하지 않는 인본 45종과 전하는 인본이 41종임을 밝혔다.

이외에 영천지역 간행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 남권희⁸⁾는 『救荒撮要』의 간행본 가운데 영천에서 간행된 판본을 대상으로 서지분석을 하였고, 송희준⁹⁾은 18세기 전국에서 간행된 『家禮』 주석서의 절반 이상이 영천에서 편찬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천에서 간행된 『가례』 주석서를 저자별·시기별로 분류하였다.

한편 영천지역과 관련된 유물 및 고문헌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영천역사문화박물관¹⁰⁾에는 조선시대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영천지역 간행서 및 영천지역 인물 지리서와 영천에 세거한 인물의 저술 등이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 기관에 소장된 유물은 한 개인이 25년 여간 수집한 것으로, 조선시대 영천지역의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들 중에 서지학 분야에서 그동안 연구된 영천지역 간행서의 현전 자료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사료나 조선시대 책판 목록류에 기록으로만 전하던 자료가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단일 書籍이나 分類상 한 종류의 서적에 관한 연구에 그치고 있고,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상당수의 영천지역 간행본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에 대한 사료기록과 선행연구를 다시 정리하여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영천지역 간행서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의 분석 및 이를 종합화하여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를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영천지역 출판문화사 연구의 학문적 접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영천 지역의 문화적 배경

현재 영천 지역은 동쪽으로 포항·경주, 서쪽은 경산·대구, 남쪽은 청도, 북쪽은 청송·군위와 인접한 도시로¹¹⁾ 영천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二水三山’이라 일컫는다.¹²⁾ 여기서 ‘二水’는 보현산

8) 남권희, “永川版 『救荒撮要』,” 『嶺南學』 창간호(2001), 293-308.

9) 송희준, “18세기 永川 지역의 『家禮』 주석서에 대하여,” 『韓國의 철학』 第28號(2000), 249-276.

10) 영천역사박물관은 2015년 7월에 박물관사업자등록을 취득하여 현재 영천시 임고면에 건립을 준비 중이다.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는 신라시대 불상·회화·조각·공예·민속자료·고문헌 등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15,0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 중에 고서의 경우 고려시대 재조대장경인 『瑜伽師地論』을 비롯하여 445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고문서 1,206종·목판 9종 56점·탁본 7종·고지도 5종·다라니 2,000여 종 등이 있다. 또한 고서 445종에서 약 50%가 영천지역 간행서이거나 영천지역의 인물, 지리, 역사, 문화 등 영천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11) 李炳洪, 『益陽誌』 卷1, 疆域.

에서 나와 남천과 북천으로 나뉘어 淸通驛¹³⁾ 앞에서 다시 합해져 흐르는 금호강¹⁴⁾을, ‘三山’은 북쪽으로 普賢山, 서쪽으로 八空山, 동쪽 雲住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쪽 四龍山·九龍山 등 영천지역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⁵⁾

영천지역은 선사시대를 거쳐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육로를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八公山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있었다.

먼저 신라시대 축조된 사찰로 591년(眞平王 13) 해림법사는 富貴寺, 善德女王 때 義湘(625-702)은 妙覺寺와 巨洞寺, 647년(眞德女王 1)에 慈藏이 修道寺를 창건,¹⁶⁾ 景德 景德王代(742-765)에 왕명으로 건립된 居祖庵, 809년(憲德王 1)에 竹林寺, 813년(헌덕왕 4)에 海眼寺를 창건¹⁷⁾하였다. 이 외에 816년 安德寺(奇奇庵)와 873년 혜철국사에 의해 百興庵이 창건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에 창건된 이 지역 사찰에서 불서의 수입 및 교육의 목적으로 불서를 저술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영천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영천 인근의 경주에서 서적을 간행¹⁸⁾하여 중앙으로 바친 사례를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경부유수 최호, 판관 나지열, 사록 윤립, 장서기 정공간 등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전한서」, 「후한서」와 「당서」를 새로 간행하여 바치자, 모두에게 관작을 하사하였다.¹⁹⁾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巨帙의 「전한서」·「후한서」·「당서」를 간행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나

“在慶常道之正東東迎日慶州西慶山達城南淸道北青松軍威”

12) 영천시, 디지털영천문화대전(<http://yeongcheon.grandculture.net/>)

13) 위치로 볼 때 현재 영천시 쌍계길(오수동)과 사모산길(쌍계동)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 李炳洪, 「益陽誌」卷1, 山川.

“二水 出普賢山分爲南北二川之淸通譯永川前復合是謂二水 二水爲永字郡名以此”

15) 李炳洪, 「益陽誌」卷1, 山川.

“母子山 一名普賢在郡北七十里自慶洲春北同大山來爲郡鎮山…八空山 在郡西三十里來自花山盤據八州之界古名八空山…雲住山 在郡北四十里來自慶洲北東大山…四龍山 南三十里來自仁愛山 九龍山 在郡南四十里來自四龍山…”

16) 무열왕(654-661)대에 웅정암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면서 1603년에 지조와 원찬이 중창하여 靈芝寺를 건립하였고, 文武王(661-681)때 義湘이 창건한 法華寺는 1742년(영조 18)에 옮겨와 鳳林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17) 해안사는 이후 고려 1270년(원종 11)에 중창하고, 1545년(仁宗 1)에 절을 옮겨 銀海寺라 이름을 고쳤다.

18) 고려시대 경주에서 간행된 서적을 보면, 고종연간(1192-1259)에 林惟正의 「百家衣集」 3권을 崔瑀가 遺稿를 모아 편집 및 刊布하였고, 1282년(忠烈王 8) 李德孫이 東京副留守로 있으면서 「慈悲道場懺法」을 간행하였고, 1301년에는 東京官에서 당나라 盧仝의 「玉川先生詩集」을 개관하였다. 1334년과 1335년에는 鷄林府에서 각각 「白花道場發願文略解」와 「達磨大師觀心論」이 開板되었고, 1360년에는 이승휴의 「帝王韻紀」가 동경관에서 개판되었다. 남건희, “朝鮮時代 慶州 刊行의 書籍,” 「新羅文化」 第33輯(2009), 11.

19) 「高麗史」卷6, 1042년(靖宗 8), 世家 卷第6, 2月 25日(條).

“己亥 東京副留守 崔顯 判官 羅旨說 司祿 尹廉 掌書記 鄭公幹等奉制 新刊兩漢書與唐書 以進 並賜爵”

인력 등이 영천지역에서 일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 서적 간행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적 간행의 주관은 중앙에서 맡고 주요 郡縣에서는 판각 등 기술적 지원을 하는 체제임을 감안하면 당시 경주유수부의 관할인 영천지역에도 인쇄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불교문화는 조선 초기에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1521년 백홍암에 조선의 12대 왕인 인종 태실²⁰⁾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사찰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종이 왕세자로 있는 동안 이 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는 1531년 공산본사에서 『묘법연화경』을 시작으로 1543년까지 7종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그 인본 가운데 『묘법연화경』은 왕실에서 간행한 불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영천 지역에서는 제향과 교육, 지방교화의 기능을 가진 향교와 서당 등이 세워졌다. 유교 문화의 산실인 이 기관들은 제향과 교육, 교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양한 주제의 서적이 필요함에 따라 禮類, 傳記類, 別集類 등의 서적이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3. 史料기록에 수록된 영천지역 출판 활동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사를 살펴보기 위한 1차 자료로 우선 현재 전하고 있는 간행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2차 자료로 『攷事撮要』 등의 책판 목록류와 읍지 및 중기 그리고 서목 등을 통해서 영천지역에서 판각되거나 간행된 서책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차 자료인 책판목록을 중심으로 하고, 아울러 책판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영천지역 간행서를 史料와 선행연구, 그리고 현존하는 책판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영천지역 출판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3.1 조선 전기

3.1.1 조선 전기 영천책판

조선 전기 영천지역에서 판각된 책판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고사촬요』가 있다. 『고사촬요』는 魚叔權이 1554년(명종 9)에 편찬한 것으로 이후 1771년(영조 47) 徐命膺(1716-1787)이 『攷事新書』로 개정 및 증보하기까지 10여 회 이상 간행된 類書이다. 이 가운데 1576년 乙亥字本(晚松本), 1576년 乙亥字鰐刻本, 1585년 木板本(南文閣 影印本), 1585년 日本寫本에 조선 전기 영천지

20) 인종(1515-1545)의 태를 봉안하던 곳으로, 1621년(중종 16)에 조성하여 인종대왕이 죽고 난 후 1546년(명종 1)에 가봉 완료하였으며 1680년(숙종 6)에 보수가 있었다.

역에서 판각된 책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576년 을해자본²¹⁾에는 「柳文」·「泰齋集」·「千字」·「四雨亭集」·「止止堂集」·「圃隱集」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576년 을해자 번각본²²⁾에도 6種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천자」가 「四字千字」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일한 서적으로 보인다. 또 1585년 목판본²³⁾에는 앞선 6종과 함께 「浣花流水」, 「家禮」, 「古文謬選」, 「夙興夜寐箴」, 「陶山記」, 「伊洛淵源」, 「抄史略」, 「疑獄集」, 「赤壁賦」, 「兵衛森」, 「務農集」, 「剪燈新話」, 「文忠公族譜」, 「啓蒙傳疑」 등 14종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인본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태재집」과 「지지당집」 2종이다. 「태재집」은 泰齋 柳方善(1388-1443)의 시문집으로 家藏되어 있던 글을 아들 柳允庚·允謙이 수집 및 편차를 하고 李甫欽(미상-1457)의 도움을 받아 1450년(세종 32) 北齋書堂에서 목판본으로 初刊 되었는데, 현재 그 간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²⁴⁾되어 있다.

「지지당집」은 金孟性(1437-1487)이 지은 시 243수를 김맹성의 친구인 克庵 李昌臣(1449-?)이 수습·편집하여 경상도 관찰사 金應箕(1455-1519)에게 간행을 위탁하였다. 김응기는 曹偉(1454-1503)에게 교정을 보게 하였고 간행의 실무는 영천 군수 李達(1454-1505)가 맡아 1501년에 간행되었다.

한편 1576년 을해자본과 1585년 목판본 「고사촬요」에 기록된 「유문」, 「가례」, 「포은집」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문」은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1569년(선조 2)에 영천 군수 姜汝凱가 이 책의 草卷을 보내 주었고, 1573년(선조 6) 3월 11일에 柳希善이 영천의 「유문」을 인출하여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²⁵⁾는 서적관계 기사에서 영천 간행에 관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유문」은 1569년경에 판각이 시작되어 1573년에 완성하고 1576년 책판목록에 수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례」는 1557년 5월 14일(명종 12년) 李文樞가 영천 군수 沈義儉의 아들에게 「가례」 인출을 부탁하였고 1558년(명종 13) 5월에 다시 李忠慶 편에 종이를 보내 인출을 부탁하였다.²⁶⁾ 따라서 「가례」의 판각은 1557-1558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책판목록에 수록된 것은 1585년이다.

「포은집」의 경우,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1439년 「圃隱詩藁」 初刊本, 1533년 新溪에서 간행된 「포은시고」, 1575년 開城에서 간행된 「포은시고」, 1575-1584년 校書館에서 간행된 「圃隱先生集」, 1585년 柳成龍이 교정한 「포은선생문집」 등 조선 전기에 5차례 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⁷⁾ 그리고 1585년(선조 18) 宣祖는 정몽주의 문집을 간행하여 반포하도록 명하며 盧守愼에게

21) 鄭亨遇,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29.

22) 鄭亨遇, 尹炳泰(1995), 67.

23) 鄭亨遇, 尹炳泰(1995), 109.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7262)

25)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220.

26) 우정임(2009), 186.

27) 崔彩基, “조선시대 간행 『圃隱集』 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第30號(2006), 34-35.

서문을 짓게 하였고,²⁸⁾ 柳成龍에게는 「포은집」을 교정하고 발문을 쓰게 하였다.²⁹⁾ 따라서 조선 전기에 영천에서 「포은집」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영천에서 판각된 책판은 총 20종으로 그 가운데 현재 전하고 있는 인본은 「태재집」, 「지지당집」 2종이고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은 「유문」, 「가례」, 「포은집」 3종이다.

3.1.2 기타

이 외의 영천지역 책판목록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영천지역에서 간행된 서적과 관련하여 사료 및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조선 전기 영천지역에서 간행된 현존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모두 9종이 확인된다.

먼저 불서류로 1531년부터 1543년까지 총 7종이 간행되었는데, 간행처는 모두 ‘永川郡 公山本寺’, ‘永川地 公山本寺’, ‘八公山本寺’, ‘公山本寺’, ‘永川 八公山本寺’, ‘永川 公山本寺’라 기록하고 있어서 7종의 불서가 ‘공산본사’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종의 불서를 각 간행연도별로 보면, 1531년(연산군 26) 5월에 「妙法蓮華經」의 중간³⁰⁾ 및 「毘盧遮那惣歸眞言」이 개판되었다. 1532년 5월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天地冥陽水陸齋儀疏牒文節要」가 개판되었고, 1535년(연산군 30) 3월에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³¹⁾ 「結手文」이 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543년(중종 38) 3월에는 「大慧普覺禪師書」가 간행이 된다.

이외에 영천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는 「武陵雜稿」와 「疊山先生批點文章軌範」이 있다. 「무릉잡고」는 愼齋 周世鵬(1495-1554)의 시문집으로 그의 아들 周博(1524-?)이 家藏草稿를 수습하여 1564년 李滉에게 교정을 받아 1581년(선조 14) 주박이 영천 군수로 재임할 당시 8권으로 중간하게 된다.³²⁾ 현재 이 중간본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영본 2책이 소장되어 있다.

「첩산선생비점문장궤범」은 南宋代의 謝枋得(1226-1289)이 초학자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唐·宋代의 문장 69篇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조선 전기부터 여러 차례 간행이 되었고, 영천에서는 仁祖代(재위 1623-1649) 이전에 7권 2책 목판본[四周單邊, 10行22字, 上下黑口黑魚尾]으로 간행[丙戌八月日永川開刊]을 하였다. 현재 이 간행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奎中 2188, 2189)되어 있다.

한편 黃俊良(1517-1563)은 星州牧使로 재직하면서 임고서원에 있던 목활자를 빌려 1561년(명종 16)에 「晦菴書節要」를 간행하게 된다. 이 책은 退溪 李滉(1501-1570)이 「朱子大全」에 수록된 晦菴

28) 「宣祖修正實錄」 1585年(宣祖 18) 乙酉, 7月 1日(條).

“命刊布 … 鄭夢周文集 上欲崇表節義 以勵風俗 故有是命 命盧守愼作序文 …”

29) 柳成龍, 「西厓集」 卷18, 圃隱集跋 乙酉.

“萬曆甲申(1584)秋 主上殿下命芸閣印先生文集 先命臣校正訛舛 且跋其後”

30) 「中宗實錄」 1531年(中宗 26) 5月 (條).

31) 「中宗實錄」 1535年(中宗 30) 5月 (條).

32) 「武陵雜稿」 해제(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朱熹와 文人, 知舊들 간에 주고받은 서찰 가운데 1,008편을 뽑아 문인들에게 寫錄하여 20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황준량이 간행할 당시 서명은 『회암서절요』였으나 이후에 『朱子書節要』로 바뀌었다. 『회암서절요』는 임고서원의 목활자로 간행한 인본이지만, 황준량이 임고서원의 목활자를 빌려가 성주에서 간행한 것이므로 영천지역 간행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그 간행본이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³³⁾

이상에서 조선 전기 영천 간행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20종 가운데 18종은 전하지 않으며 2종은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문헌기록에서 2종과 불서류에서 7종이 조선 전기 현존하는 영천 간행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조선 전기 영천지역 간행서는 총 29종이며 전하지 않는 서적은 18종이고 현존하는 인본은 11종으로 종합된다.

3.2 조선 후기

3.2.1 조선 후기 영천책판

조선 후기 책판 목록류의 기록에 의하면 영천지역에 소장되어 있거나 판각된 책판은 모두 108종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 108종에서 동일 서명을 가진 책판과 서명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 책판으로 추정되는 것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전해진 책판 등을 제외할 경우 모두 32종의 책판이 조선 후기 영천에서 판각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표 1> 조선 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영천 책

책판목록명	필사시기	종수
『古書冊板有處考』	1700년경	10종
『慶尙道冊板』	1730년경	9종
『冊板置簿冊』	1740년경	11종
『三南所藏冊板』	1743년경	7종
『諸道冊板錄』	1750년경	7종
『完營冊板目錄』	1759년경	7종
『古冊板有處攷』	1780년경	10종
『書冊目錄』	1815년경	14종
『各道冊板目錄』	1840년	13종
『冊板錄』	년대 미상	11종
『嶺南冊板』		9종

위에서 언급한 서명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 책판으로 추정되는 예를 보면, 1740년경

33)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300.

필사된 「삼남소장책판」에 수록된 「家禮考訂」과 「家禮考證」을 들 수가 있다. 「가례고정」은³⁴⁾ 간행 시기와 간행처가 맞지 않으므로 誤記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문헌기록과 문집³⁵⁾에서도 「가례고증」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2종은 동일한 판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心經質疑」와 「心經覽疑」의 경우도 책판에 기록된 종이 양³⁶⁾으로 보아 同種을 오기한 것이며, 「心經質疑考誤」·「心經質疑考證」도 대부분의 문헌기록³⁷⁾에서 「심경질의고오」로 표기되어 있어 이것도 같은 책판을 다르게 표기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경질의」와 「심경질의고오」도 같은 책판이라 볼 수 있다.³⁸⁾

이와 같이 중복된 책판을 제외하면 조선 후기 영천 소장 책판은 39종이며, 여기에 조선 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유문」, 「가례의절」,³⁹⁾ 「지지당집」, 「이락연원」, 「사우정집」, 「사자천자」, 「병위삼」 7종을 제외시키면 32종이 조선 후기 영천에서 판각된 책판으로 확인된다.⁴⁰⁾

<표 2> 조선 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영천 책판 (● - 有, × - 無)

순번	책판명	책판 년도											현존 현황
		1700 년경	1730 년경	1740 년경	1743 년경	1750 년경	1759 년경	1780 년경	1815 년경	1840 년경	冊板錄	嶺南 冊板	
		10종	9종	11종	7종	7종	7종	10종	14종	13종	11종	9종	
1	泰齋集	○						○		○			●
2	圃隱集	○	○	○	圃隱	○	○	○	三卷	○	○	○	● (4종)
3	新刊書傳	○						○					×
4	柳文	○						○					전기
5	家禮儀節	○						○					전기

34) 「가례고정」은 안동 사람 柳徽文(1773-1827)의 문집인 「好古窩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1898년에 간행되었다. 「가례고증」은 지산 조호익이 중국 구준이 편찬한 「가례」에 관해 어려운 부분을 고증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조호익이 죽은 뒤 그의 제자 김육이 정리, 편찬하여 1646년(인조 24)에 7권 3책으로 간행되었다.

35) 책판 「常變通考」, 引用書目, 「五洲衍文長箋散稿」, 其他書目, 「大山集」 권33, 「退溪集」 권8, 「芝山集」 권1의 연보와 권2 행장에서 모두 「家禮考證」으로 표기하고 있다.

36) 「삼남소장책판」, 「제도책판록」, 「완영책판록」에 모두 13장이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37) 「葛庵集」에서는 「心經質疑考證」이라 기록하였다. 하지만 「大山集」, 「記言」, 「棟溪集」, 「眉叟記言」, 「常變通考」 등 대부분 문집에서 「심경질의고오」라 표기하고 있다.

38) 책판목록에 기록된 종이의 소요되는 양이 「삼남소장책판」과 「제도책판록」, 「완영책판록」에 13장 이라 기록되어 있고 1858년 「서책목록」에는 18장, 1840년 「각도책판목록」에서는 1권7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13장에서 18장, 27장(1권7장)이라 종이량이 늘어나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책판에 지산 조호익의 저술서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는 「심경질의고오」를 간행하면서 책판의 개보수나 증보를 한 것으로 짐작되어 동일책판으로 간주하였다.

39) 조선 전기에 기록된 「가례」는 「주자가례」를 말하는 것이며 조선 후기 책판에 수록된 「가례의절」은 「문공가례」의 해설서인 「주자가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조선 전기의 「가례」와 「고서책판유처고」 1700년경과 1780년경에 수록된 「가례의절」은 同種으로 보인다.

40) 한편 1832년 무렵 편찬된 「慶尙道邑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666)에 임고서원(圃隱集板·大禹篆板·獎忠篇板), 환구 세덕사(湖叟實紀板), 도잠서원(芝山集板·家禮考證板), 호연정(瓶窩集板)에 소장된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

순번	책판명	책판 년도											현존 현황
		1700 년경	1730 년경	1740 년경	1743 년경	1750 년경	1759 년경	1780 년경	1815 년경	1840 년경	冊板錄	嶺南 冊板	
		10중	9중	11중	7중	7중	7중	10중	14중	13중	11중	9중	
6	家禮考證		○	○	家禮 考訂	○	○		三卷	○	○	○	⊙
7	止止堂集	○						○					전기
8	伊洛淵源	○	○	○				○				○	전기
9	四雨亭集	○						○					전기
10	續伊洛 淵源	○						○					×
11	四字千字	○						○					전기
12	二養編		○	○								○	⊙
13	芝山集		○	○	○	○	○		二卷	○	○	○	⊙
14	兵衛森		○	○								○	전기
15	三韻通考		○	○								○	×
16	決訟類抄		○									○	⊙
17	成仁錄		○	○								○	×
18	朱子書			○									×
19	玉樓春案			○									×
20	項籍傳			○									⊙
21	匪解堂記				○	匪解堂 記書	匪解 堂書						×
22	大禹手篆				○	○	○		大禹篆	禹象集	大禹篆		⊙
23	獎忠編				○	○	○		一卷		○		×
24	心經質疑				心經 覽疑	○	○		心經質疑 考證一卷	心經質疑 考誤	心經質 疑考證		⊙
25	君安記文 十二字								○		眉叟記文		×
26	湖叟先生 實記二卷								○		湖叟實記		⊙
27	涵溪集								三卷		○		⊙
28	梅山集								六卷		○		⊙
29	年譜一卷								○	年譜			⊙
30	大學童子 答問								一卷	○	○		⊙
31	瓶窩集 九卷								○				⊙
32	陽溪集 一卷								○				⊙
33	芝峯集									○			⊙
34	大田集									○			⊙
35	耕憑實記									○			×
36	生六臣集									○			嶺營 ⁴¹⁾
37	正菴集									○			×

41) 『生六臣集』은 영천 龍溪院藏板을 嶺營에서 간행한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영천에서 판각된 책판 가운데 간행본의 현존 유무를 확인한 결과 현존하지 않는 인본은 「新刊書傳」·「續伊洛淵源」·「三韻通考」·「成仁錄」·「朱子書」·「玉樓春案」·「匪鮮堂記」·「獎忠編」·「耆叟記文」·「耕憑實記」·「正菴集」 11종이며, 현존하는 인본 가운데 「포은집」이 4차례 간행되었음이 확인되면서 21종의 인본이 전하고 있다.

3.2.2 기타

조선시대 책판목록에 수록된 서적 외에 선행연구⁴²⁾와 문헌기록 등에서 밝혀진 영천지역 간행서 가운데 현존하는 간행본을 간행시기별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더불어 사찰 간행본 13종 가운데 일부 자료를 살펴보았다.

1654년(효종 5)에 영천군에서 「救荒撮要」와 「辟瘟新方」을 1책 목판본으로 合刊하여 「壽民方」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이 간행된 배경은 「벽온신방」의 권수에 ‘1653년(효종 4)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약재를 내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俗方에서 쓰기 쉬운 것을 편집하여 간행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권말에 영천군수 李珣(재임기간: 1653-1656)가 쓴 발문에 간행기록이 확인된다.⁴³⁾

한편 18세기에 영천지역에서 9종의 「가례」 주석서가 편찬 및 간행되었고 그 가운데 현존하는 인본은 「家禮或問」과 「家禮輯要」가 있다.⁴⁴⁾ 먼저 1705년(숙종 31)에 간행된 「가례혹문」은 영천지역에서 최초로 간행된 가례 주석서로 鄭碩達(1660-1720)이 주석한 것이다. 목판본 10권 5책으로 정만양이 1703년경 편찬하여 1705년에 완성되었다. 동아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 간행본이 소장되어 있다. 1752년(영조 28)에는 정중기가 通禮, 冠禮, 婚禮, 喪禮, 祭禮 등 규범이 되는 예법을 기술하여 목판본 7권 3책으로 「가례집요」를 간행한다. 권수에 ‘歲壬申八月下澣後學烏川鄭重器謹識’라는 정중기(1685-1757)의 識文이 있다. 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미국 버클리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1800년(영조 24)에는 曹景溫(1548-1592)의 「林溪先生實記」가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이 되는데, 권수에는 權訪이 1800년에 쓴 서문(聖上二十四年庚申…)이 있고 권말에는 金若鍊(1730-1802)의 발문이 있다.

1831년(순조 31)에는 박인로의 후손인 朴慶濩·朴天柱·朴希柱 등이 편찬하고 鄭夏源·崔鎰(1762-?) 등이 교정한 「蘆溪先生文集」이 3권 2책 목판본으로 간행된다. 박경호의 청을 받은 李鼎秉이 묘갈명을 1829년(歲己丑冬至後二日…)에 撰하였으며, 副承旨 金裕憲에게 서문을 받았다. 간행시기와 관련하여 권 2의 권말에 정하원의 小律四首 앞에 보이는 ‘辛卯(1831)孟冬 偕崔子成讐校蘆

42) 남권희(1999), 351-456.; 남권희(2001), 97-142.; 임기영(2011), 215-225.

43) 남권희(2001), 298-300.

44) 송희준(2000), 249-276.

溪公逸稿時…」과 최옥의 발문을 통해 간행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1832년(순조 32)에는 조선 후기의 승려 正訓(1751-1823)의 『澄月大師詩集』이 팔공산 修道菴(수도사)에서 목판본 3권 1책으로 開刊되었다. 정훈의 속성은 金氏이고, 자는 敬昊, 호는 澄月이다. 권수에 희곡산인이 1829년 5월에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1832년에 李台升과 金履德이 쓴 발문이 있다.

1844년(헌종 10)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천지역의 학자인 鄭幹(1692-1757)의 『鳴皋先生文集』이 9권 5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권수에 定齋 柳致明(1777-1861)이 1844년에 쓴 서문(上之十年甲辰…)을 통해서 간행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이 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와 과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74년(고종 11)에 정세아의 9세손 鄭熙奎가 『湖叟先生實記』의 내용을 보완하여 목판본 9권 2책으로 重刊을 하였다. 권수에 1782년 정범조의 서문과 함께 朴珪壽(1807-1877)가 쓴 ‘萬曆壬辰後二百八十三年歲在甲戌(1874)…’이라는 기록과 권말에 趙性教가 1873년에 쓴 重刊 발문(上之即祚十年…)을 통해서 간행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간행본은 한국국학진흥원과 전남대학교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1879년(고종 27)에는 세종의 아들 廣平大君 李璵의 후손인 李誠中(1706-1760)의 시문집인 『坡谷遺稿』가 1책으로 간행되었다. 『과곡유고』는 이성중의 10대손으로 당시 영천 군수였던 李鶴來(재임기간: 1876-1880) 등이 편집한 것으로, 권수에는 金世濂이 1639년에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李命雄의 발문과 6세손 이성경과 10세손 이학래의 後識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영천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간행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1605년(선조 36)에는 ‘영천지 팔공산본사’에서 『請文』이 간행되었고, 1606년 8월에는 ‘영천팔공산본사’에서 『高峰和尚禪要』가 간행되었다. 이후 18세기에 들어 1741년 3월에는 ‘팔공산 수도사’에서 『大彌陀懺略抄要覽』, 『普勸念佛文』, 『佛說阿彌陀經』, 『臨終正念訣』, 『父母孝養文』 등 5종이 개간되었다. 은혜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1769년 『八萬大藏經題目錄』, 1798년 『永川郡銀海寺寺蹟』이 전하고 있다. 또 1795년에는 『艮翁先生文集』이 永川佛舍에서 간행이 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 책판 목록류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현존하는 영천지역 간행서는 8종이고 사찰 간행본 11종이 확인되었다.

3.3 현존 책판

조선시대 판각된 영천지역 책판에 대한 실물 조사 및 전존 양상에 대하여 1987년 문화재관리국⁴⁶⁾에서 전국 사찰소장 목판 조사를 통하여 영천지역 사찰에 소장된 목판이 조사되었고, 2007년에는

45) 姜銓燮, “『蘆溪集』의 형성,” 『국어국문학』 제62호(1973), 17-18.

46) 文化財管理局,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302-305.

한국국학진흥원에서⁴⁷⁾ 경북지역 책판의 일제 조사과정에서 영천지역 사찰을 포함한 문중 등에 소장된 책판이 조사되었다. 그 외 선행연구⁴⁸⁾에 의하여 일부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제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천지역의 책판을 정리해 본 결과 모두 52종이 확인되었다. 이 자료를 사찰·서원·문중·종가 소장 목판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3.3.1 사찰 소장 책판

1987년 문화재관리국 조사 당시 영천지역 사찰의 소장 책판은 백흥암에 소장된 것으로 밝혔으나, 현재는 은해사 정보박물관이 건립되면서 백흥암 소장의 책판과 영천지역 사찰간행 불서가 모두 은해사 정보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7년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⁴⁹⁾에서 은해사에 소장된 책판을 일제 조사하여 16종 676경판이 소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2015년 은해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⁵⁰⁾ 15종이 확인되어, 2007년 조사와 2015년 조사의 책판 수가 일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영천 지역 사찰 소장 책판

번호	원소장처	서명	년도	발행지 및 발행처	판수 (완본수)	현소장처
1	百興庵	妙法蓮華經	1531	永川郡 公山 本寺	279	은해사
2		毘盧遮那惣歸眞言	1531	永川地 公山 本寺	2	
3		天地冥陽水陸齋儀疏 勝牒文節要	1532	永川地 公山 本寺	7	
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535	永川地 公山 本寺	22	
5		大慧普覺禪師書	1543	公山 本寺	45	
6		請文	1605	永川地八空山 本寺	38	
7		高峰和尚禪要	1606	永川地八空山 本寺	28(29)	
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33	
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 多羅尼經			1	
합계	9종 455경판					

47)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7).

48) 윤동원(2014), 94-104.; 윤동원(2013), 92.

49) 한국국학진흥원(2007), 477-512.

50) 『묘법연화경』(81000100 000241) 279판, 『묘법연화경』(81000100 000242) 40판, 『비로자나총귀진언』(000243) 2판,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000244) 1판, 『고봉화상선요』(000245) 28판, 『대혜보각선사서』(000246) 45판, 『청문』(000247) 38판,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000248) 22판,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000249) 33판, 『천지명양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000250) 8판, 『오대진언』(000251) 2판, 『괴암선생일고』(000252) 15판, 『수색집』(000253) 130판, 『운재유고』(000254) 50판, 『전민간료법』(000255) 1판 등 15종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水色集』 130판, 『芸齋遺稿』 42판, 『傳民間療法』 1판은 현재 은혜사 末寺인 경산 環城寺로 옮겨져 있다. 하지만 은혜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眞言集』 2경판과 『乖庵先生逸稿』 15판, 『疏(1)』 6경판, 『疏(2)』 2경판,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一卷』 22경판, 1685년 『妙法蓮華經』 30경판 등 6종은 간행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영천지역 사찰에서 판각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9종을 제외한 나머지 9종은 백흥암에 소장되어 있었으며 7종에서 판각된 간행처가 ‘공산본사’, ‘팔공산본사’로 되어 있어 영천지역 사찰에서 판각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확인된 영천지역 불서 가운데 7종의 경판이 남아있고 백흥암에 소장되었던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多羅尼經』은 추가로 확인되는 현존하는 영천지역 사찰간본이다.

3.3.2 서원과 문중 소장 책판

영천지역에서 판각된 책판으로 현재 문중 11곳과 서원 3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전존 수량은 모두 43종 3,044판이다.⁵¹⁾ 소장처별로 종수를 살펴보면, 迎日鄭氏 墳叟宗中에 10종, 昌寧曹氏 芝山門中 7종, 迎日鄭氏 梅山宗家 6종, 迎日鄭氏 世德詞와 臨臯書院에 각각 4종, 迎日鄭氏 三休宗宅・迎日鄭氏 昌臺鄭公門中・全州李氏 瓶窩宗中에 각 2종, 古川書院・道溪書院・瑞山柳氏太齋派門中・安東權氏 忠毅公宗中・安東權氏 風詠門中・迎日鄭氏 醉醒堂門中에 각 1종이 전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일정씨 훈수종중이 가장 많은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43종의 책판에 대하여 간행본의 현존 유무와 조선시대 책판목록 ‘영천’조에서의 책판 기록여부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간행본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영천 지역 현존 책판 현황 (●-책판목록, ■-선행연구, ×-인본 無)

번호	영천 지역 소장처	서명	판각년도	편저자	판수 (원본수)	비고
1	古川書院	忠賢錄	1797	金大海	36(49)	
2	道溪書院	蘆溪先生文集	1831/ 1904/ 1964	朴仁老	33(68)	
3	瑞山柳氏 太齋派門中	太齋先生文集	1815	柳太齋	15(107)	●
4	安東權氏 忠毅公宗中	白雲齋忠毅公實紀	1786	權應銖	77	
5	安東權氏 風詠門中	風詠亭逸稿	1873	權應道	32(33)	

51) 한국국학진흥원(2007), 391-552.

52) “崇禎紀元後百十三年(1740)”이라는 기록만 전해진다.

53) 刊記: “昭和十二年二月二十日發行/慶尙北道永川郡古鏡面巴溪洞二六一番地”

54) 刊記: “閏逢攝提格(甲寅, 1914)…族後孫秉詔謹識.”

번호	영천 지역 소장처	서명	판각년도	편저자	판수 (원본수)	비고
6	迎日鄭氏 世德祠	迎日鄭氏別續譜			2	×
7		原派錄	1740 ⁵²⁾		1	×
8		迎日鄭氏世譜	1879		275	×
9		迎日鄭氏續譜			499	×
10	迎日鄭氏 梅山宗家	家禮或問	1705	鄭碩達	181	■
11		家禮輯要	1752	鄭重器	79	■
12		涵溪先生文集	1773	鄭碩達	116(118)	◎
13		竹扉集	1903	鄭一贊	81	
14		梅山先生文集	1797	鄭重器	3(264)	◎
15		圃隱先生續集 辨訂錄	1700년 후반	臨臯書院	8	
16	迎日鄭氏 三休宗宅	常華集	1900	鄭好義 鄭好信	27	
17		蒼軒集	1814	趙友慤	1	
18	迎日鄭氏 昌臺鄭公門中	南窓先生文集	1882	鄭梯	17(75)	
19		昌臺鄭公實紀	1893	鄭大任	2(40)	
20	迎日鄭氏 醉醒堂門中	醉醒堂逸稿	1910	鄭時衍	22	
21	迎日鄭氏 埴叟宗中	改葬備要	1715	鄭萬陽· 鄭葵陽	16(19)	
22		暘溪先生文集	1794	鄭好仁	25(45)	◎
23		暘谷詩稿	1900년경	鄭碩胃	11(27)	
24		疑禮通考	1861	鄭葵陽 編	86(195)	
25		疑禮通考別集	1861	鄭葵陽 編	10(37)	
26		麓叟先生文集附錄	1809	鄭萬陽	6(18)	
27		鶴巖先生文集	1700년경	鄭時衍	18(26)	
28		埴麓兩先生文集	1809	鄭萬陽· 鄭葵陽	248(588)	
29		埴麓兩先生續集	1906		35	
30		埴麓兩先生語錄	1906		31(72)	
31	臨臯書院	大禹手篆	1826		4	◎
32		獎忠編			9(10)	◎ ×
33		芝峯先生實記	1836	皇甫仁	36	◎
34		圃隱先生文集	1866	鄭夢周	114	◎
35	全州李氏 瓶窩宗中	瓶窩先生文集	1772	李衡祥	256(333)	◎
36		雲觀詩集	1937 ⁵³⁾	李儀鶴	66(68)	후
37	昌寧曹氏 芝山門中	大學童子問答	1779	曹好益	18	◎
38		易象說	1779	曹好益	45	
39		家禮考證	1883	曹好益	131	◎
40		豚庵集	1914 ⁵⁴⁾	曹德臣	96	후
41		心經質疑考誤	1883	曹好益	18	◎
42		芝山先生文集	1883	曹好益	166	◎
43		恥齋先生文集	1898	曹善迪	92	
합계	43종 3,044판					

<표 4>에 나타난 문중 및 서원 소장 책판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판각되었는데, 이중에 간행이 되어 전존본이 확인된 것이 37종이고 刊行有無가 확인되지 않은 것⁵⁵⁾으로는 「迎日鄭氏別續譜」, 「原派錄」, 「迎日鄭氏世譜」, 「迎日鄭氏續譜」, 「獎忠編」 5종이다. 한편 조선시대 책판목록 ‘영천’조에 수록된 책판은 「태재선생문집」, 「함계선생문집」, 「매산선생문집」, 「양계선생문집」, 「대우수전」, 「장충편」, 「지봉선생실기」, 「포은선생문집」, 「병와선생문집」, 「대학동자문답」, 「심경질의고오」 등이다. 「지산선생문집」은 초간 이후 1883년에 「문집」·「부록」·「심경질의고오」·「역상설」·「대학동자문답」을 합하여 21권 10책으로 중간된 책판이 문중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책판 가운데 「豚庵集」은 1914년에 간행되었고, 「雲觀詩稿」는 1937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에서 제외되는 자료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책판목록, 현존 책판,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를 파악해 보았다. 그 가운데 일부 수정과 보완을 하여 영천지역 간행서의 現存有無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사료 및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영천 간행서 목록

시기	인본	서명
조선 전기 29종	無 18종	柳文, 圃隱集, 千字, 四雨亭集, 浣花流水, 家禮, 古文謬選, 夙興夜寐箴, 陶山記, 伊洛淵源, 抄史略, 疑獄集, 赤壁賦, 兵衛森, 務農集, 剪燈新話, 文忠公族譜, 啓蒙傳疑
	有 11종	泰齋集, 止止堂集, 武陵雜稿, 疊山先生批點文章軌範(4종), 妙法蓮華經, 毘盧遮那佛歸真言,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疏牒文節要, 結手文,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大慧普覺禪師書(7종)
조선 후기 79종	無 15종	新刊書傳, 續伊洛淵源, 三韻通考, 成仁錄, 朱子書, 玉樓春案, 匪鮮堂記, 獎忠編, 蒼安記文, 耕憑實記, 正菴集(책판목록 11종), 迎日鄭氏別續譜, 原派錄, 獎忠編(중복), 迎日鄭氏世譜, 迎日鄭氏續譜(현존목록 4종)
	有 64종	泰齋集, 圃隱集(4), 家禮考證, 二養編, 芝山集(1727), 決訟類抄, 項籍傳, 大禹手篆, 心經質疑考吳, 湖叟先生實記(1782), 涵溪集, 梅山集, 年譜, 大學童子答問, 瓶窩集, 惕溪集, 芝峯集, 大田集(책판목록 21종), 救荒撮要, 家禮或問, 家禮輯要, 林溪先生實記, 蘆溪先生文集(1831), 鳴臯先生文集, 湖叟先生實記(1874), 坡谷遺稿(8종),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佛說長壽滅罪諸童子多羅尼經, 請文, 高峰和尚禪要, 大彌陀懺略抄要覽, 普勸念佛文, 佛說阿彌陀經, 臨終正念訣, 父母孝養文, 八萬大藏經題目錄, 永川郡銀海寺寺蹟, 艮翁先生文集, 澄月大師詩集(사찰간본 13종), 忠賢錄, 蘆溪集(1904), 白雲齋忠毅公實紀, 風詠逸稿, 竹扉集, 常華集, 蒼軒集, 圃隱先生續集辨訂錄, 南窓集, 昌臺鄭公實紀, 醉醒堂逸稿, 改葬備要, 惕谷詩稿, (疑禮通考 疑禮通考別集), 墳簾兩先生文集, 簾叟先生文集附錄, 鶴巖先生文集, 墳簾兩先生續集, 墳簾兩先生語錄, 芝山先生文集(1883), 易象說, 恥齋集(현존목록 22종)
영천 간행본 108種, 간행본 有 75種·無 33種		

사료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를 종합해 보면 조선 전기는 총 29종으로 현존하는 간행본은 11종, 전하지 않는 간행본은 18종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것으로 현존하는

55) 한국국학진흥원(2007), 397-552.

영천지역 간행서는 모두 64종으로 책판목록에서 21종 · 선행연구 등에서 8종 · 사찰간본 13종 · 현존 책판 가운데 간행된 서적 22종이다.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영천지역 간행서는 15종으로 책판목록에서 11종과 영천지역 소장 책판 가운데 책판목록과 중복되는 『成仁錄』을 제외하면 4종으로 정리된다.

이상 문헌기록과 선행연구 그리고 현존 책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는 108종으로 현존하는 간행본은 75종이고 현존하지 않는 간행본은 33종으로 파악되었다.

4. 현존 자료로 본 영천지역 간행서적

본 장에서는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영천지역 간행서를 중심으로 사료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간행서를 중심으로 서지적 분석을 하였다.

4.1 16세기

영천지역 간행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공산본사에서 1531년과 1535년에 각각 간행된 목판본 7권 7책의 『妙法蓮華經』과 목판본 1책으로 간행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있다. 이 불서의 간행 배경으로는 1521년 팔공산 백흥암에 인종의 태실이 봉안되고 왕세자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간행된 것으로 『묘법연화경』은 왕실판인 을해자 번각본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보이는 사찰간본이다. 이 사찰간본은 사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4.1.1 『妙法蓮華經』

- 木板本. 7卷 7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8×19.8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8.5×27.2cm

『묘법연화경』은 鳩摩羅什이 번역하고 戒環이 해석한 불교의 대표적 경전으로 조선시대에 成達生本, 初鑄甲寅字本, 乙亥字本, 大字本, 諺解本, 獨自板本 등 다양한 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공산본사본 『묘법연화경』은 7권 7책의 목판본으로 권수에 變相圖 7面, 妙法蓮華經弘傳序, 妙法蓮華經要解序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제는 ‘妙法蓮華經’, 판심제는 ‘法華經’이고 권말의 판구는 대흑구로 되어 있으며 승려 行浩가 주관하고 法崇, 愼初, 靈隱, 印精, 慶喜, 性臨 등이 판각에 참여하였다. 권말에는 ‘嘉靖十年 辛卯 六月日 慶尙道 永川郡公山本寺重刻’이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1531년 영천군 공산본사에서 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531년 공산본사 간행 「妙法蓮華經」 변상도

이 불서는 1455년(세조 1) 왕실에서 을해자로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인데, 현재 전하는 을해자 번각본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산본사본이 간행된 이후 같은 해 全羅 中臺寺・忠淸 無量寺, 1537년 全羅 龍泉寺, 1555년 忠淸 廣德寺, 1562년 全羅 雙峯寺, 1564년 黃海 貝葉寺, 1572년 全羅 無爲寺, 1631년 慶尙 水巖寺 외 미상 3종 등이 을해자 번각본으로 간행되었다.

공산본사본의 특징은 제 1장 판심 하단 흑어미에 ‘信’이라 표기되어 있는 점과 을해자 번각본 가운데 가장 빠르며 다양한 변상도가 보이는 점이다.⁵⁶⁾ 현재 은해사 정보박물관에 목판 279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인본은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4.1.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木板本. 1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8.2×20.7cm, 有界, 7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38.5×27.2cm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는 불교의식 수록제의 기본서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設會因由篇 第一’부터 ‘奉送六道篇第三十五’까지 상단에 手印을 그려 넣고 아래에는 진언을 수록하여 수록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의식의 요점만 뽑아 수록하였다. 판심제는 ‘結’이며 권말에 ‘嘉靖十四年乙未三月日 慶尙道永川地公山本寺開板’이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1535년(중종 30) 3월 공산본사에서 개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性林’, ‘一遇’ 등 승려 33인, 대시주 ‘張勿金’ 등 4인, 판시주 ‘金彥命’, ‘啓功郎’, ‘李義全’ 등 7인, 記官 ‘李蕃成’, ‘李郢’, 楨司 ‘鄭允湜’, ‘御侮將軍 庚義仲’, 각수질에는 ‘愼初’, ‘性臨’, 鍊板에는

56) 鄭王根, “朝鮮時代『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113-116.

‘學禪’, 供養主에 ‘宗敏’, 化主에 ‘惠能’ 등 당시 간행에 참여했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 가운데 일우, 혜민, 一耘, 각수 신초와 성립, 연관 학선, 어모장군 경의중 등은 1531년 『묘법연화경』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그림 2> 1535년 공산본사 간행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4.2 17세기

17세기 자료는 총 12종으로 주제 및 판본별로 살펴보면, 경부는 2종, 사부는 4종, 자부는 1종, 집부는 5종이며 1646년 4권 1책으로 필사된 「永川李氏世譜」를 제외하면 모두 목판본이다.

간행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1607년(선조 40)에 영천 군수 황여일의 주도로 3권 2책으로 간행된 「포은집」 4종과 임고서원 간행기록이 있는 「항적전」 1책이 있다. 또한 1628년(인조 6) 영천군에서 「계축사마방목」이 1책으로 간행되었고, 1641년(인조 19)에는 「삼운통고」가 영천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1649년(인조 27)에 1책으로 간행한 「결송유취」와 1650년(효종 1)에 간행된 조호익의 「가례고증」, 그리고 1654년에 1책으로 간행된 「구황촬요」, 1677년(숙종 3)에 重刊된 「포은집」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책판목록의 ‘영천’조에 기록된 「포은집」, 「삼운통고」, 「가례고증」, 「결송유취」는 간행본 실물이 전함에 따라 영천지역 간행서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책판목록 ‘영천’조에 기록이 있으나 인본이 드러나지 않았던 「삼운통고」의 경우 권말 간기를 통하여 동종 운서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07년에 간행된 「포은집」도 이제까지 연구에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계축사마방목」은 본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항적전」은 현재 영천지역에 책판이 남아 있는 영천 간행서이다.

간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관판본은 1607년 「포은집」, 「계축사마방목」, 「삼운통고」, 「결송유취」, 「구황촬요」, 1677년 간행본 「포은집」 등이다. 서원판본은 「항적전」, 「가례고증」이다.

4.2.1 「項籍傳」

- 木板本. 1冊(18張). 四周單邊, 半郭 22.7×16.2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葉花紋魚尾 ; 31.5×20.6cm



<그림 3> 「項籍傳」 권수면과 권말 간기

「항적전」은 중국 진나라 말기 項羽(232-202)의 傳記이다. 항우는 유방과의 전투를 통해 역대최고의 장수로 꼽히는 인물로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 문학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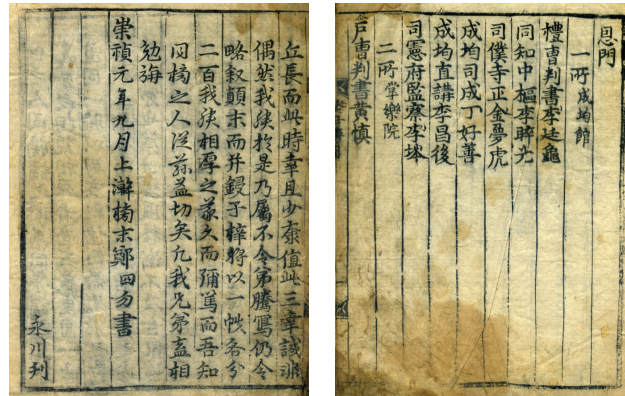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표제와 판심제는 ‘項籍傳’이고 앞, 뒤표지 이면에 墨書가 있다. 권말에 ‘萬曆三十五年(1607)丁未仲夏 永川 臨臯書院 重刊’이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1607년 임고서원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740년에 필사된 「책판치부책」 ‘영천’조에 기록이 되어 있다.

4.2.2 「癸丑增廣司馬榜目」

- 木板本. 1冊. 四周單邊, 半郭 23.2×16.9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32.3×21.8cm

「癸丑增廣司馬榜目」은 본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간행서로, 1628년(崇禎 元年) 영천에서 간행된 것이다. 1613년(萬曆 41, 광해군 6) 5월 初 5일에 실시된 生員・進士試의 합격자 명단을 1628년(인조 6년) 9월 상한에 朴安孝가 永川郡守로 재직할 당시⁵⁷⁾ 永川士人 鄭四勿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본 방목이 간행된 배경은 당시 증광시에서 박안효는 진사 3등 70인에, 정사물은 生員試

2등 15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 진다.⁵⁸⁾



<그림 4> 「癸丑增廣司馬榜目」의 권수면과 간기

본 방목의 내용은 恩門, 癸丑增廣司馬榜目・生員試・一等五人・二等二十五人, 三等七十人, 進士試, 一等五人, 二等二十五人, 三等七十人, 附錄,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생원시 제 1장 부분(癸丑增廣司馬榜目・生員試・一等五人)이 낙장되어 필사하여 보완하였다. 권말에 ‘崇禎元年(1628)九月上泮榜末鄭四勿書/永川刊’이라는 간행기록 있어 영천 관아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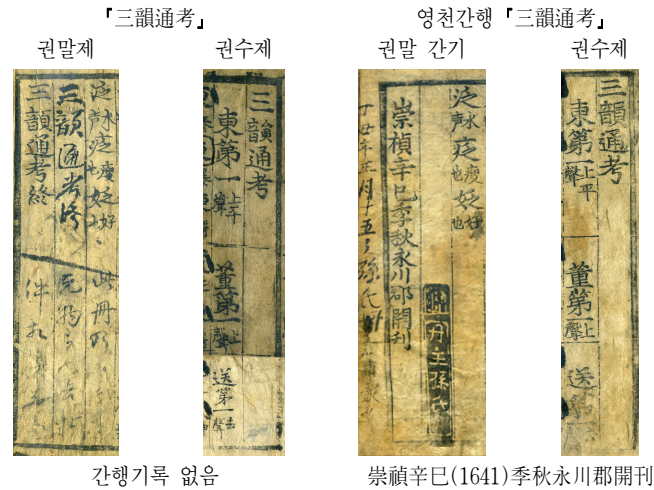
4.2.3 「三韻通考」

- 木板本. 1冊(78張). 四周單邊, 半郭 14.6×11.5cm, 有界, 9行14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 20.4×16.5cm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의 「삼운통고」는 1641년 당시 영천군수로 있던 邊復一의 재임기간 중에 간행된 것임을 권말의 ‘崇禎辛巳季秋永川郡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同種의 운서 가운데 간행기록이 있는 인본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운서는 지금까지 현존하지 않은 영천 간행서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본관에 소장된 자료에서 조선 후기 책판목록 가운데 1730년경 필사된 「경상도책판」과 1741년경의 「책판치부책」 및 「영남책판」의 ‘영천’조에 기록된 「삼운통고」가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7) 박안효는 1625년에 영천군수로 부임하여 1630년에 교체되는데, 본 방목은 박안효가 영천군수로 재직하면서 간행된 것이다.

58) “朴安孝: 具慶下 鴈行 兄起一 幼學朴安孝 仁伯 丁亥 本密陽 居京 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鼎賢,” ; “鄭四勿: 慈侍下 鴈行, 幼學 鄭四勿 亦顏 甲戌 本延日 居永川 父宣務郎軍資監主簿三畏,”



<그림 5> 「三韻通考」 2종의 권수면과 권말부분 비교

4.2.4 「救荒撮要」

- 木板本. 1冊. 四周單邊, 半郭 20.8×14.6cm, 有界, 註雙行, 9行17-20字, 上下內向混葉紋魚尾; 30.3×18.3cm

「구황촬요」는 흉년에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어린 싹 등을 알맞게 가려 식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1654년(효종 5) 李昫가 「구황촬요」와 「벽운신방」을 목판본 1책으로 습간한 것이다.⁵⁹⁾ 본문에서는 내용을 한문으로 쓴 다음 언해문은 한 자를 내려 써서 기술하고 있다. 표제는 훼손되어 명확하지 않으며 권수에는 蔡裕後(1599-1660)가 1653년에 쓴 「辟瘟新方序」가 있으며, 변란 상단에 「壽民方」이라는 서명이 판각되어 있다. 채유후의 서문 다음으로 「구황촬요」의 내용이 10장에 걸쳐 수록되어 있고, 「구황촬요」의 권말에는 1639년(인조 17) ‘명종 조 진홍의 법을 이어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역대 왕들의 의지에 감동하여 책을 간행하여 배포 한다’는 김육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김육의 발문 다음으로 「벽운신방」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1639년 김육이 간행한 1책을 구하여 보관하였고 새롭게 조정에서 내려준 「벽운신방」과 함께 보충하고 참고하여 한 질을 만들었다. 그리고 「구황촬요」도 합간하여 서명을 「壽民方」이라 하고 군내 청사에 보관토록 하였다.’는 이구의 발문내용과 함께 ‘甲午(1654)九月既望行永川郡守李昫謹識/永川郡開刊’이라는 간행기록이 확인된다.

59) 남권희(2001), 293-308.



권말 간기

「救荒撮要」 권수면

서명과 「辟瘟新方」 서문

<그림 6> 1654년 영천군 간행 「救荒撮要」와 「辟瘟新方」

4.3 18세기

18세기 자료는 총 24종으로 주제 및 판본별로 살펴보면, 경부에서는 목판본 2종 · 필사본 2종이 있고, 사부는 목판본 3종 · 필사본 1종이다. 자부는 목판본 3종, 집부는 목판본 9종 · 필사본 4종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改葬備要」는 장례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목판본 1책으로, 鄭萬陽 · 鄭葵陽이 1715년에 쓴 서 ·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1727년(영조 3)에 조호익의 「芝山集」이 3권 2책으로 초간 되었고, 1740년(영조 16)에는 영천유림이 간행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간행처가 확인되지 않는 「迎日鄭氏世譜源派錄」이 7책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741년(인조 19)에는 영천 수도사에서 간행된 「임종정념결」, 「부모효량문」이 확인된다. 1760년(영조 36)에는 황계서원에서 정만양 · 정규양의 「墳簞兩先生集」을 목판본 30권 17책으로 간행하였고, 1774년(영조 48)에는 이형상의 문집인 「瓶窩先生文集」이 18권 9책이 간행되었다.

1779년(정조 3)에는 지산 조호익의 저술서 3종이 확인된다. 1책 목판본으로 간행된 「대학동자문답」과 목판본 3권 2책으로 간행된 「지산집」 속집 그리고 「역상설」이 있다. 1779년 간행된 지산의 저술서는 「서책목록」, 「영천」조에 「在道峯書院」이라 기록되어 있어서 도감서원에서 판각 및 간행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현재는 「창녕조씨 지산문중」에 「대학동자문답」, 책판 18판과 「역상설」, 책판 45판이 남아 있다.

1782년에 8권 2책 목판본으로 간행된 「湖叟鄭先生實紀」는 환구 세덕사에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權應銖의 「白雲齋忠毅公實紀」는 4권 2책의 목판본으로 채제공과 李光靖(1714-1789)이 1786년에 쓴 서문을 통하여 간행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90년에는 鄭好仁의 「陽溪先生文集」 2권 1책과 정석달 · 정중기 부자의 문집인 「涵溪先生文集」

6권 3책 및 『梅山先生文集』 12권 6책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정중기의 『梅山先生文集』은 정종로의 발문을 붙여 1797년에 다시 간행되었다.

1700년 후반에 『포은선생속집변정록』이 1책 목판본으로 간행된다. 이 책의 간행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769년 『포은선생속집』이 간행되고 3년 뒤 1772년에 어떤 사람이 속집본은 송양서원본을 본떠 중간했다고 비방하는 글을 충렬서원에 투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임고서원에서 경상감사에게 ‘환성지송’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사실로 보았을 때 이 책은 임고서원에서 18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간행서로 가장 늦은 金大海⁶⁰⁾의 『忠賢錄』은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발문기록을 통해 1797년에 간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자료들 가운데 조선 후기 책판목록의 ‘영천’조에 기록된 것으로는 『지산집』, 『대학동자문답』, 『병와선생문집』, 『호수선생실기』, 『매산집』, 『함계집』, 『양계집』 등 7종으로 확인되었다.

영천지역 소장 책판의 간행서로는 『영일정씨세보원파록』, 『충현록』, 『백운재충의공실기』, 『매산집』, 『함계집』, 『양계집』, 『역상설』, 『훈지양선생문집』, 『병와집』 등이다. 특히 『원파록』은 이제까지 그 책판만 알려져 왔고 간행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그 실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18세기의 자료를 간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도감서원에서 간행된 『지산집』·『대학동자문답』·『역상설』·『지산집(년보)』이 있고, 황계서원에서 간행된 『개장비요』·『훈지양선생문집』·『양계집』 등이 있다. 매곡서원에서 간행된 『함계집』·『매산집』 그리고 고천서원에 책판이 소장된 『충현록』 등이다. 사찰간본으로는 『임종정념결』과 『부모효량문』 2종이 있다. 이외에 간행서의 범주에서 제외된 필사본은 7종으로 다음과 같다.

정부에는 정만양과 정규양에게서 수학한 李弘畝⁶¹⁾의 『慵窩家塾禮家指南』이다. 사부에는 『烏川鄭氏世譜』가 있고 자부에는 1730년 이형상의 『瓶窩講義』가 있다. 집부에는 정중기의 『玉礪亭唱酬錄』이 있는데 이 필사본은 옥간정이 건립되고 1716-1736년까지 이 곳을 방문한 영천지역 유림들이 지은 시문이 필사되어 있다.

정만양·정규양·정몽양 형제들의 필사본 자료로 3종이 확인된다. 『先賢遺墨』은 이들 형제의 시문이 자필로 쓰여진 자료이고, 『橫溪手柬』은 황계서원을 방문했던 감회를 쓴 시문이다. 특히 이 자료에는 약재와 처방에 관한 내용인 ‘琥珀膏’가 수록되어 있다. 『兩先生墳簞錄』은 원고본인데, 이후 『훈지양선생문집』으로 간행된 인본과 내용의 변개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이형상의 필사본 『병와강의』 1책은 미간본으로 확인된다.

60) 김대해(1544-1592)는 영천 고천리에 세거했던 인물로 영천 고천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충현록』은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61) 李弘畝(1701-1778): 조선 중기 학자. 자는 孟猷, 호는 慵臥, 본관은 慶州, 거주지는 영천이다. 정만양과 정규양 형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상 18세기에 간행된 소장 자료를 정리하면 <표 6>과 같고, 현존하는 영천 간행본에서 누락된 자료는 「영일정씨원과록」, 「부모효량문」 2종이 확인되었다.

<표 6> 18세기 영천 자료 목록

主題別	版種別	書名
經部	木板本	改葬備要, 大學童子問答
	筆寫本	慵窩家塾禮家指南
史部	木板本	迎日鄭氏世譜源派錄, 忠賢錄, 圃隱先生續集辨訂錄
	筆寫本	烏川鄭氏世譜
子部	木板本	臨終正念訣, 父母孝養文, 易象說
	筆寫本	瓶窩講義
集部	木板本	芝山集, 墳篋兩先生集, 瓶窩集, 芝山集(1779), 湖叟實紀, 白雲齋實紀, 梅山集, 涵溪集, 賜溪集
	筆寫本	先賢遺墨, 兩先生墳篋錄, 橫溪手柬, 玉礪亭唱酬錄
확인된 간행본		迎日鄭氏世譜源派錄, 父母孝養文

다음은 18세기 일부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4.3.1 「迎日鄭氏世譜源派錄」

- 木板本. 零本 1冊. 四周單邊, 半郭 23.6×18.2cm, 有界, 12行24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3.7×23.7cm

「영일정씨세보원과록」은 영일정씨의 족보로 鄭襲明의 一世祖로 하는 ‘知奏事公派’인 정몽주 系派와 고려 때 監務를 지낸 鄭克儒를 일세조로 하는 ‘監務公派’에 대한 분과기록이다. 표제는 ‘迎日鄭氏世譜目錄’이고 권수제와 관심제는 ‘迎日鄭氏世譜源派錄’이다. 권수 목록을 살펴보면 ‘卷之升’을 시작으로 권 1-7과 부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본은 권 1에서 권 7까지 결락되었다.

한편 목차에는 각 권마다 간행당시 판각된 책판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권 3에 ‘三上’ 아래에 세주로 ‘文忠公派下圖’라 기록하고 행 마지막에 ‘二十八板’이라 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卷之升에는 36판, 권 1은 22판, 권 2에는 76판, 권 3은 83판, 권4는 107판, 권 5는 78판, 권 6은 84판, 권7은 112판이고 부록은 5판, 跋은 2판이 사용되어, 「원과록」을 판각하는데 사용된 총 책판의 수는 605판으로 확인되며 현재 ‘영일정씨 환구 세덕사’에 1판이 남아 있다.

서문에 ‘己丑正月甲子十六世孫前大君師傅克後(1577-1658)謹識’와 권말 小識에 ‘崇禎紀元後百十三年立冬’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1649년(인조 27) 간행본에 내용을 추가하여 1740년(영조 16) 11월에 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1649년(영조 35) 간행본과 1740년 간행본의 전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에서 그 실물이 확인되었다.



권말 간기

권수면

판각에 사용된 책판 수량

<그림 7> 「迎日鄭氏世譜源派錄」

4.3.2 「臨終正念訣」·「父母孝養文」

- 木板本. 1冊. 四周單邊, 半郭 20.7×15.8cm, 有界, 9行18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9.0×19.3cm

「임종정념결」은 정토계 論書로 염불수행 방법을 전하는 것인데, 선도화상이 佛子가 임종할 때 어떻게 염불을 해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왕생극락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지귀자와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8> 「臨終正念訣」·「父母孝養文」

「부모효양문」은 승려 長蘆가 부모의 은혜가 지극히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결같이 효도하는 것이 참된 효임을 밝힌 것이다. 또, 부모가 돌아가신 뒤의 극락왕생을 비는 薦度の 의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천도를 통해 극락왕생을 강조하여 불교적 효행의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토신앙의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불서는 諺解本으로 구성이 한문과 언해문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차 1-2, 1-3으로 표기하고 있다. 「임종정념결」의 판심의 어미는 5장 가운데 제 1장과 제 5장이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2-4장은 無魚尾이다. 「부모효량문」의 어미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권말에는 ‘國明’, ‘宍悅’이라는 각수명과 ‘乾隆六年辛酉季春日慶尙道新寧八公山修道寺開刊’이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1741년 팔공산 수도사에서 판각되어 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불서는 1753년 대구 팔공사 동화사에서 간행된 「佛說阿彌陀經」 및 「王郎返魂傳」과 合綴되어 있다.

4.3.3 「墳簾兩先生文集」

- 木板本. 30卷 16冊(本集 30卷 15冊, 附錄 1冊). 四周雙邊, 半郭 21.7×15.8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 ; 32.4×21.0cm

「훈지양선생문집」은 정만양·정규양⁶²⁾의 시문을 동생인 鄭夢陽(1679-1745)이 筆寫한 原稿本을 바탕으로 정몽양과 鄭幹(1692-1757), 정중기 등이 편차하여 1760년경에 간행된 문집이다.

권수제는 ‘墳簾兩先生文集’이며 구성은 권수에 晉陽 鄭宗魯의 序文 6장과 ‘墳簾錄 自序’가 있다. 자서에 ‘훈지 두 형제가 尼南山 아래에 거주하여 지은 시문과 각자가 지은 것을 정몽양에게 적게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훈선생문집부록」의 간행과 관련하여 연보를 통하여 간행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연보는 ‘顯宗 七年 丁未 四月二十九日先生生于永川郡北大田里’⁶³⁾를 시작으로 정만양의 생애를 연도별로 기록하고 있다. 또 ‘三十六年庚辰士林倣滄洲古事奉享兩先生于橫溪書堂(堂即兩先生平日講學之所)’이라는 기록이 있어 1730년(영조 6) 4월 정만양의 사후 1760년(영조 36)에 사람들이 양선생이 강학을 했던 황계서당에 봉향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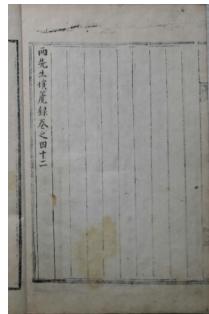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의 「훈지양선생문집」은 목록 1책이 없는 30권 16책이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30권 17책의 완질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훈지양선생문집」의 원고본인 「兩先生墳簾錄」, 영본이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62) 정만양(1664-1730)의 본관은 烏川, 자는 景醇, 호는 塹叟이고 정규양(1667-1732)의 자는 叔向, 호는 簾叟이다. 형 정만양은 1724년(경종 4)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다시 능참봉, 익위사세마 등에 동용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저서에는 아우 규양과 함께 「곤지록」, 「이기집설」, 「가례차의」, 「개장비요」, 「의례편고」, 「상지록」, 「모현록」, 「외국지」, 「계몽해의」, 「산거일기」, 「훈지문집」, 「심경질의보유」 등이 있다. 정몽양(1679-1745)의 자는 獻吉, 호는 迂拙齋로 이 세 사람은 형제이다. 본래 안동에서 태어났으나 부친 鄭碩胄가 세상을 떠나자 永川 普賢山 아래 橫溪로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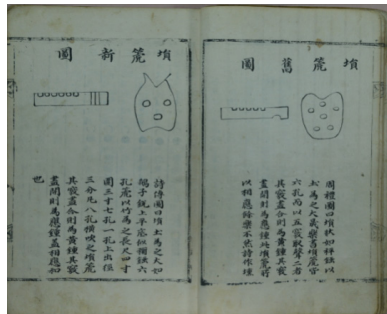
63) 1667년(현종 7) 4월 29일 영천군 대전리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668년(현종 8)에 태어났다.

데, 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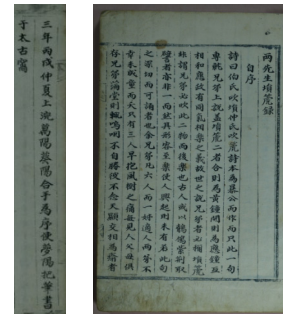
- 原稿本. 零本 36卷 18册(全 42卷 21册).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0×14.5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7.8×1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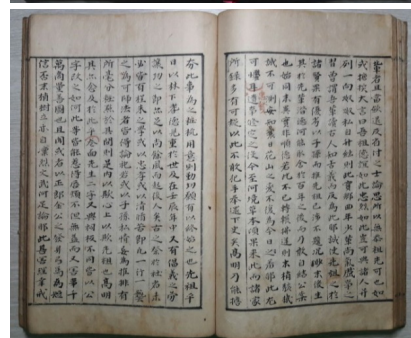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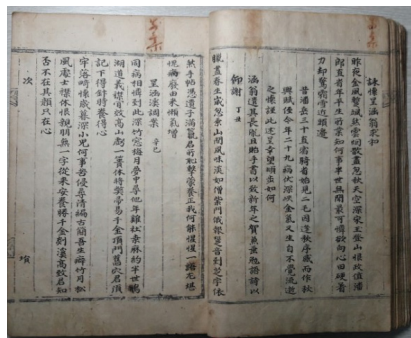
卷末



墳簾圖



卷首 自序



편집·교정 부분

<그림 9> 「兩先生墳簾錄」

「양선생훈지록」은 정만양·정규양의 시문을 정몽양이 필사한 원고본으로 본문에 수록된 시와 책의 일부 제목 아래에는 그 글을 지은 정만양과 정규양의 號와 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의 시작년과 이 원고본의 완성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신년에 호수가 ‘贈許能甫詩’를 썼다는 것을 제목 아래 細註로 ‘并小序 甲申’ 아래에는 ‘簾’로 기록하였다. 나란히 수록된 시의 경우 ‘元日詠懷’는 ‘丙戌’ ‘塤’ · ‘二月遇先生忌病甚未赴只行望笑之儀’는 ‘簾’ 등과 같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원일영회’를 병술 정월에 호수가 병술년 2월에 지수가 썼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제목 아래에 기록된 년도를 조사해 본 결과⁶⁴⁾ 1693년경부터 1731년경까지 약 34년간 동안 지어진 글이 수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권 1의 卷首의 自序에 ‘崇禎甲申後六十三年丙戌仲夏上浣萬陽葵陽合手爲序使夢陽把筆書于太古窩’⁶⁵⁾ 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전에 쓴 글을 수합하고 1706년 이후부터는 정만양과 정몽양이 서로 번갈아 가며 시를 읊으면 정몽양이 필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권 40에는 정만양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어 1730년 정만양이 죽은 이후 정규양이 죽기 이전 1731-1732년 사이에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원고본은 朱書나 墨書로 편집 · 교정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鄭君請名命以抑仍衍其義相勉’ 邊欄에 붉은 글씨 또는 첨지를 덧붙여 ‘別集’이라 표기하였고, 검은 색으로 글씨를 삭제한 흔적, 붉은 색으로 줄을 치거나 괄호를 쳐서 본 문장 옆에 併記한 경우 등이다.

<표 7> 『塤簾兩先生文集』 원고본과 간행본의 수록 내용 및 권·책수 비교

『兩先生塤簾錄』 原稿本(42권 21책)			『塤簾兩先生文集』 刊行本(30권 16책)		
卷數	冊數	수록	卷數	冊數	수록
6	3	世系圖, 塤簾三十二吹圖 · 塤簾舊圖 · 塤簾新圖 · 塤簾三十六吹圖, 塤簾詩의 악보, 詩	1-6	3	世系圖, 塤簾三十二吹圖 · 塤簾舊圖 · 塤簾新圖 · 塤簾三十六吹圖, 塤簾詩의 악보, 詩
7-34 13-14缺	13	書	7-20	7	書
			21-22	1	雜著
			23	1	序 · 記 · 跋 · 箴銘 · 上樑文 · 祝文
35-38권		?	24		箕子志 · 退溪先生墨帖 · 萬事通訣 · 三韻通考 · 傳燈錄 등
			25	1	祭文
39-40	1	祭文	26		誄 · 墓表 · 墓碣銘 · 墓誌銘
			27	1	行狀 · 遺事 · 行錄
			28		行狀
			29	1	行狀 · 家狀
41	1	誄	30		家傳 · 遺事 · 行錄 · 行記
42		誌碣		1	附錄
				1	目錄 (缺)

64) 癸酉(1693), 乙亥(1695) 丁丑(1697), 辛巳(1701), 壬午(1702), 甲申(1704), 乙酉(1705), 丙戌(1706), 辛卯(1711), 壬辰(1712), 丁酉(1717), 戊戌(1718), 己亥(1719), 壬寅(1722), 丙午(1726), 辛亥(1731)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65) 1706년 음력 5월 상순에 만양과 규양이 함께 서문을 쓰고 아우 몽양이 글을 태고와에서 썼다. 또 태고와는 1701년에 두 형제가 건립한 곳으로 1730년에 문인들이 개축하여 橫溪書堂의 慕古軒으로 이름을 바꿨다.

『훈지양선생문집』 간행본과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의 원고본을 비교해 보면 書名의 경우는 『兩先生墳簾錄』에서 『墳簾兩先生文集』으로 바뀌었고, 卷數와 冊數의 경우는 원고본의 경우는 42권 21책, 간행본은 30권 16책으로 卷數도 42권에서 30권(附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의 원고본은 권 13-14와 권 35-38이 缺本이라 내용의 구성과 편집을 비롯한 내용분석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간행 당시 상황과 여러 여건으로 권차와 책수는 줄어들었지만 편집과 수정을 거치면서 내용면에서 다양한 분류 방법으로 수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19세기 - 1910년 이전

19세기부터 1910년 이전 자료는 총 53종으로 주제 및 판본별로 살펴보면, 경부는 목활자본 1종이고 사부는 목판본 2종 · 목활자본 4종 · 필사본 3종이다. 자부는 필사본 3종으로 확인되고 집부는 목판본 30종 · 목활자본 4종 · 필사본 6종이다.⁶⁶⁾

이러한 53종의 자료 가운데 조선 후기 책판목록의 ‘영천’조에는 『지봉실기』, 『포은집』, 『태재집』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당시 판각된 30종의 책판 가운데 간행본으로 『훈지양선생어록』, 『창헌집』, 『태재집』, 『지봉실기』, 『창대공실기』, 『지산집』, 『치재집』, 『상화집』, 『남창집』, 『노계집』, 『훈지양선생속집』이 전하고 있다.

한편 필사본에서 주목되는 자료로 『松浦公實紀』, 『蒼軒遺稿』, 『恥齋遺稿』 3종 원고본이 있다. 1873년 1책으로 필사된 『송포공실기』는 趙宗岳⁶⁷⁾의 기록을 그의 7세손인 趙基濬이 편집했던 자료로 1947년 석인본으로 간행되었고, 『창헌유고』는 趙友懋의 기록을 편집했던 자료로 1814년 『蒼軒集』으로 간행되었다. 曺善迪의 글을 수합하여 편집된 『치재유고』도 1898년 『恥齋集』으로 간행되었다. 이외 『新寧縣邑誌』는 1832년 『경상도읍지』에 수록된 자료 가운데 신령현 부분만 필사한 자료이다.

19세기-1910년 이전까지 자료 가운데 간행기록이 명확한 자료 36종 가운데 주요 자료에 대해 서지적 분석을 하였다.

4.4.1 『泰齋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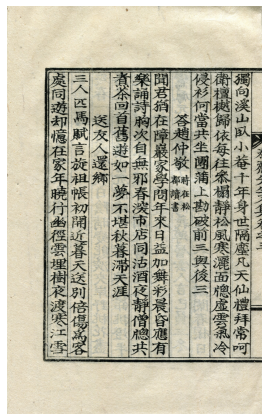
- 木板本(校正本). 5卷 2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2×14.2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30.0×19.5cm

『태재집』 초간본은 1450년(세종 32)에 영천 북습서당에서 5권 2책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18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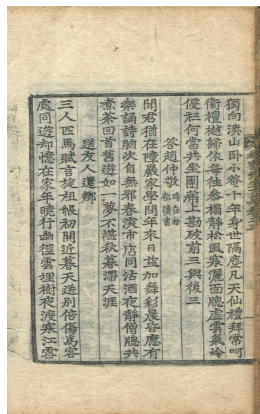
66) 임기영(2011)의 연구에서 1815년본 『태재집』이 누락되었고, 또 1866년 간행본인 『圃隱集』을 임고서원 간행본이라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천군수의 주도로 간행된 사실을 일부 확인하여 이 문집을 관판본으로 본다.

67) 조종약(1574-1641)은 영천 자양에 세거했던 인물이다. 본관은 한양, 자는 景仰, 호는 龜巖이다. 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임진왜란 때 권응수 의병장의 수하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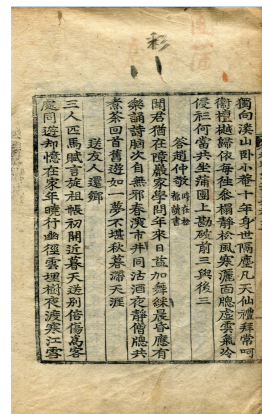
유방선의 14대손 柳天植이 ‘景泰元年庚午徐居正’의 서문이 있는 『泰齋先生吟藁詩集』에 부록과 내용을 정리하여 영천 송곡서원에서 5권 2책의 목판본으로 중간을 한다. 이 중간본⁶⁸⁾의 간행과 관련하여 5권 年譜 끝에 ‘崇禎四乙亥 重刊文集于本院’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본원이라는 것은 청통에 소재한 ‘송곡서원’이다. 중간본의 서문은 이주정이 쓰고 발문은 정규양과 夏時贊이 썼다(崇禎四乙亥春正月既望後學達成夏時贊謹書).



1965년 석인본



[1815년] 인출본



[1815년] 교정본

<그림 10> 1815년 간행 「泰齋集」 교정본과 인출본, 1965년 석인본 비교

한편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는 중간하기 전의 교정본 5권 2책과 중간본 영본 1책(권3-5)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책의 출판과정과 교정방법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10>을 보면 간행한 이후 誤・脫字를 교정하여 1차로 朱書, 2차는 墨書로 교정을 보고 표식을 해 두었다. 이외에도 교정본에는 약 494자의 誤字・자획의 결락에 대하여 붉은색으로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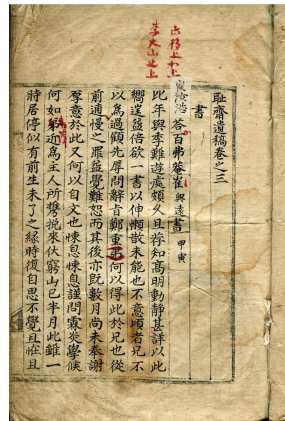
4.4.2 「恥齋先生文集」·「恥齋遺稿」

- 木板本. 4卷 2册. 四周單邊, 半郭 20.0×15.8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0.6×21.0cm
- 筆寫本. 零本 1册(卷3-5). 四周雙邊, 半郭 20.3×14.5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1.6×1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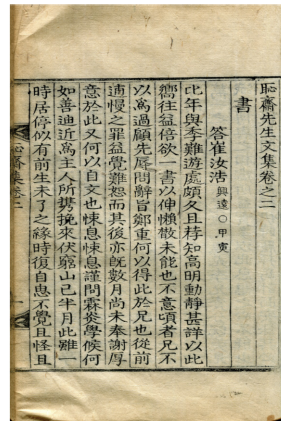
『치재선생문집』은 恥齋 曹善迪(1697-1756)⁶⁹⁾의 시문집으로 1898년 목판본 4권 2책으로 간행된

68) 1840년에 『각도책판목록』 ‘영천’조에 『태재집』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간본 책판으로 추정된다. 현재 책판은 ‘서산유씨 태재공문중’에 15판이 소장되어 있다.

것이다. 책의 서문은 張福樞 등이 썼고, 발문은 李種杞가 썼다.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치재선생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작성된 관하본으로 추정되는 영본 1책(권3-5)의 『恥齋遺稿』가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 「恥齋遺稿」



간행본 「恥齋集」

<그림 11> 간행본 「恥齋集」과 필사본 「恥齋遺稿」 비교

이 『치재유고』의 본문을 보면 곳곳에 朱書 또는 簽紙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교정한 표시가 확인되는데, 이를 간행본과 비교해 본 결과 먼저 권수가 5권 2책에서 4권 2책으로 바뀌어 권차에서 차이가 나고, 본문의 교정 사항이 간행본에서 대부분 수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간행본의 책판은 ‘창녕조씨 지산문중’에 92권이 소장되어 있다.

<표 8> 19세기-1910년 이전 영천지역 간행서 목록

순번	書名	著者	卷	冊	版種	刊年
1	林溪實紀	曹景溫	3	1	木板本	1800
2	傳巖詩稿	金慶基		1	木活字本	1804
3	蒼軒集	趙友懋	3	3	木板本	1814
4	泰齋集	柳方善	5	2		1815
5	文元公耕隱田實紀	田祖生	3	1		1821
6	永陽四難倡義錄	영천유림		1		1822
7	省齋實紀	崔文炳	4	2		1835
8	芝峯實記	皇甫仁	2	1		1836
9	鳴臯集	鄭幹	9	5		1844
10	弦窩集	李遠欽	2	1		1848
11	屏厓集	曹善長	3	1		1854

69) 조선적의 본관은 창녕. 자는 仲吉, 호는 恥齋이며, 1697년(숙종 23)에 태어나 1756년(영조 32) 8월 2일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영천시 신광리 芝日 鷹峰에 있다.

순번	書名	著者	卷	冊	版種	刊年
12	昌臺實紀	鄭大任	5	1	木板本	1869
13	瓶齋集	朴河澄	4	1		1871
14	北溪集	曹龍錫	3	1		1876
15	圃隱集	鄭夢周	9	3		1877
16	東淵集	鄭伯休	5	2		1881
17	南窓集	鄭梯	6	3		1882
18	芝山集	曹好益	21	10		1883
19	朱書節要集解	鄭重器	8	4	木活字本	1885
20	東窩集	權得重	2	1	木板本	1890
21	昌臺鄭公實紀	鄭大任	2	1		1893
22	永慕亭實紀	皇甫星	3	1	木活字本	1898
23	恥齋集	曹善迪	4	2	木板本	1898
24	愚軒實記	鄭四象	2	1		1899
25	湖叟實記下破錄			1	木活字本	
26	常華集	鄭好信 鄭好儀	2	1	木板本	1900
27	二皓遺集	曹振玉	4	2		1900
28	雲窩集	鄭夏源	6	3		1900年頃
29	世孝堂實記	李濱淵	2	1	木活字本	1901
30	晚悔集	安景時	6	3	木板本	1904
31	蘆溪集	朴仁老	3	1		1904
32	墳簞兩先生語錄	鄭萬陽・鄭蔡陽	4	2		1906
33	墳簞兩先生續集		6	3		1906
34	榮陽實記	鄭襲明	4	1		1909
35	慵窩集	李弘离	6	3		1909
36	逋庵集	權周郁	8	4		1910年頃

5.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시대 영천지역에서 간행된 서적과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영천지역 간행서에 대하여 서지적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다음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조선시대 책판목록’・‘영천 인문지리서’・‘선행연구’・‘현존하는 영천 목판 현황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영천에서 간행되거나 판각된 책판으로 조선 전기에는 모두 29종이 확인되는데 그중에 현존하는 간행서는 11종이며 현존하지 않는 간행서는 18종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 영천지역에서 간행되거나 판각된 책판은 모두 79종으로 이 가운데 책판목록에서 21종, 불서류에서 13종, 선행연구 등에서 8종, 현존하는 책판 중에 현존 인본은 22종으로 확인되어 모두 64종이 전존하고 있으며 현존하지 않는 간행서는 15종이다.

이상과 같이 사료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영천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을 모두 통합해보면 총 108종으로 현존하는 간행서는 75종이고 현존하지 않는 간행서는 33종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고서 가운데 17세기에 간행된 「三韻通考」와 「癸丑增廣司馬榜目」, 그리고 18세기에 간행된 「迎日鄭氏世譜源派錄」, 「父母孝養文」 등이 새롭게 발견된 영천지역 간행서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목판본의 인쇄출판 과정에 있어서 교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815년에 중간된 「태재집」의 교정본(5권 2책)과 1898년 목판본 4권 2책으로 간행된 조선적의 「치재선생문집」의 판하본으로 추정되는 「치재유고」 1책(권3-5)이 소장되어 있다. 이 「치재유고」는 본문 곳곳에 주서 또는 첨지를 이용하여 교정한 표시가 확인된다.

셋째, 문헌기록과 선행연구 그리고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소장 자료 가운데 새롭게 발견된 조선시대 영천지역 간행서를 종합하면 조선시대 영천 간행서는 모두 131종이다. 이 가운데 100종이 현재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 남권희. 「한국국학진흥원소장 책판 각수 인명록」.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4.
- 文化財管理局.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 문화재청·경상북도편.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6.
-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전: 문화재청, 2007.
-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7.
- 民族文化研究所 編. 「嶺南文集解題」. 경산: 嶺南大學校出版部, 1988.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城: 亞細亞印刷株式會社, 2006.
- 嶺南文化研究院 編. 「영천의 樓亭 上·下」. 대구: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영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益陽誌 國譯」. 영천: 영천문화원, 2013.
- 영천문화원. 「영천 문화 총서 II」 - 영천사료집. 영천: 영천문화원, 2005.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柳津. 「國譯 西厓全書 1-2」. 서울: 西厓先生 記念事業會, 2001.
- 은해사. 「銀海寺 寺誌」. 서울: 은해사·사찰문화연구원, 2006.
- 前間恭作. 「古鮮冊譜」. 서울: 서진북스, 2011.
- 鄭亨愚, 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上·中·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鄭亨遇,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논문]

- 김순희. “竹牖 吳澐의 『圃隱集』校訂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337-359.
- 김영진. “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 - 朝鮮後期 事例를 中心으로.” 『民族文化』 第43輯(2014). 5-75.
-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1999. 12). 17-27.
- 南權熙. “永川版 『救荒撮要』.” 『嶺南學』 창간호(2001). 293-308.
- 南權熙. “『동여비고(東輿備考)』의 사찰(寺刹)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97-142.
-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한국서지학논집』. 대전: 恒心 尹炳泰 博士 停年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9. 351-456.
- 裴賢淑. “朝鮮朝 書堂의 書籍 刊行과 收藏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5輯(2006. 12). 5-40.
-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3. 9). 447-470.
-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嶺南學』 제15호(2009. 6). 229-269.
- 손성필.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학적 의의.”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359-379.
- 宋熹準. “18세기 永川 지역의 『家禮』 주석서에 대하여.” 『韓國의 철학』 제28호(2000. 12). 249-276.
- 柳浚弼.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의 - 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0집(2010). 97-132.
- 윤동원. “경북지방 사찰 소장 판본 및 전적 고찰.” 『디지털도서관』 제74호(2014). 84-104.
- 윤동원. “慶北地方 現存 板本 考察.” 『디지털도서관』 제69호(2013). 86-106.
- 이승연. “개장례에 관한 소고 -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改葬備考』를 중심으로.”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4호(2009). 301-326.
- 임기영. “永川 地域 간행 서적에 대한 서지적 고찰.” 『書誌學報』 第38號(2011). 187-238.
-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崔彩基. “조선시대 간행 『圃隱集』 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第30號(2006). 215-251.
- 崔彩基. “『포은집』을 통해 본 문집의 간행 동인.” 『민족문화』 제30집(2007. 12). 139-168.

[웹사이트]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www.aks.ac.kr>>.
- 디지털영천문화대전,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

